

# 전주문화재단, 신작 오디오북 7종 출시

시·소설·동화·수필 등 다양한 장르 구성

(재)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지역 작가들의 문학작품으로 제작한 오디오북 7종을 출시, 14일부터 유통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13일 재단에 따르면 이번에 선보이는 오디오북 신작들은 시, 소설, 동화, 수필 등 다채로운 장르로 구성됐으며, 소재도 다양하다. 성매매 집결지 선미촌의 장소성에서 소설적 발상이 시작된 강성훈 작가의 소설 '오동나무 서랍', 미각과 시각 등 감각을 표현하는 시인의 언어 감각이 돋보이는 김주현 시인의 시집 '때론 씨를 구성하는 때론엔', 중견 화가이도 한 진창운 시인이 섬세하고 예리한 언어로 그려낸 '그림시집', '잠간에도 무게가 있다면'도 소리나는 책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 노모와 함께한 산행에서의 소소하면서 진솔한 일화들을 담은 신승원 작가의 수필집 '엄마와 나의 산행일기', 삶의 순간순간 피어나는 작은 꽃봉오리 같은 단상들을 문학적 감성과 서사로 엮어낸 이진숙 작가의 수필집 '우리, 이제 다시 피어날 시간' 등도 독자와 만날 준비를 마쳤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까지 폭 넓게 다룰 수 있는 동화 두 편도 오디오북으로



진창운 시인 '잠간에도 무게가 있다면' 선보인다. 박월선 작가의 '스타탄생'과 박지숙 작가의 '침묵 너머의 너' 역시 앞으로는 '귀로 듣는 책'으로 즐길 수 있게 됐다.

한편, 전주문화재단이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오디오북 제작지원 사업은 지역의 문학작품을 전국의 독자에게 소개하고, 오디오북 시장에 지역 작가들을 홍보하기 위해 전국 문화재단 가운데 최초로 시도한 사업이다. 이번에 출시되는 오디오북은 국내 최대 규모 오디오북 플랫폼인 네이버 오디오클럽과 교보문고, 알라딘, YES24, 구글플레이, 오디오엔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백옥선 대표이사는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문학인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 기쁘다"며 "새로운 독자층을 개발하는 일은 곧 새로운 방식의 시장 개척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시도한 동년 책방들과 연계한 프로그램 등은 올해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바쁜 일상에 지친 눈을 쉬게 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오디오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신선하고 새로운 독서의 즐거움을 만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공식 SNS ([https://www.instagram.com/jeonju\\_cultural\\_foundation/](https://www.instagram.com/jeonju_cultural_foundation/))를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재단 문예진흥팀(063-291-9270)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풍어제인 부안 위도띠뱃놀이 공개행사가 정월 초사흘날(음력 1월 3일)인 지난 12일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열렸다.

## 부안 위도띠뱃놀이 공개행사 열려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 마을 평안 · 풍어 기원

풍어제인 부안 위도띠뱃놀이 공개행사가 정월 초사흘날(음력 1월 3일)인 지난 12일 부안군 위도면 대리마을에서 열렸다. 중요무형문화재 제82-3호로 지정된 띠뱃놀이는 170여년 전부터 위도 주민들이 임금님 진상품인 칠산조기가 많이 잡히는 대리마을 앞 칠산바다에 산다는 용왕에게 만선과 행복을 적은 띠지와 오색기, 허수아비 등과 어선 모양의 띠배를 제작해 바다에 띄우는 풍어제이다. 김우현 위도띠뱃놀이 보존회장은 "위도띠

뱃놀이는 띠배에 모든 액을 담아 떠나 보내면서 마을의 평안과 풍어를 기원하는 민족 고유의 얼과 혼이 함께하는 전통문화행사"라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나눔과 화합의 상징이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위도띠뱃놀이는 지난 1978년 강원도 춘천에서 개최된 제1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리마을 당대의 한 과정인 '띠배 보내기'로 출전해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부안=김석진 기자

## 한국전통문화전당, '한지에 서예를 담다' 교육생 모집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26일까지 '제2회 한지에 서예를 담다(기초반)'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한지에 서예를 담다' 교육은 전주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를 통해 전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서예의 예술성 함양과 서예를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전당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주강반과 야강반으로 나뉘어 3월부터 6월까지 주 1회씩 총 16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교육생은 반별 1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또한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해 수강보조금(10만원)을 예치, 출석률에 따라 추후 환급될 예정이다.

특히 교육생에게는 교육에 필요한 전통한지를 일부 지원하며, 서예를 전문적으로 배울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 과정도 제공된다.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되는 이번 교육은 한국전통문화전당 누리집(ktcc.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김도영 원장은 "서예 문화 진흥을 위해 지난해 첫 시행한 서예 교육에 시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높았다"며 "앞으로도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서예 문화 향유를 위한 기회 제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익산 총쇄록 완역본' 발간

익산시 · 원광대 한문번역연구소, 120년 전 모습 세세히 묘사

익산시와 원광대학교 한문번역연구소는 120년 전 고도 익산의 모습이 생생하게 담겨있는 '익산 총쇄록(하)' 번역서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간은 지난해 총쇄록에 실린 143편의 글을 번역해 '익산 총쇄록(상)'을 펴낸 데 이어는 것이다. '익산 총쇄록'은 채원 오희목(1834~1906)이 1901년 1월부터 1년 반 동안 익산군수로 재임하면서 수행했던 각종 통치 업무를 비롯해, 지인들과의 교류, 지역사회에 대한 감상 등을 기록한 시문집이다. '익산 총쇄록(하)'는 오희목의 총쇄록에 실려있는 작품 총 417개 524수를 정리했다. 한시 작품은 지은이의 섬세하고 내밀한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는데, 오희목의 한시에는 '비력하나마 익산의 기근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겠다'는 각오 등 지방 수령으로서의 다채롭고 풍부한 일상 정서가 담겼다. 그중 한 작품 '연당행'은 익산군 관아에 있던 훈지당과 징벽지의 화초, 나무, 건물의 조성 등을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익산군 관아의 120년 전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익산=이재준 기자



특히 지자체와 학계 전문가 노력으로 근대기 고도 익산이 어땠는지를 밝힐 수 있는 '익산 총쇄록' 번역서가 완간된 것은 지역사 연구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가 깊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세계유산도시 익산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익산 고문헌 자료를 발굴·번역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발간된 총쇄록은 학교와 연구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해 교육자료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익산시청 누리집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장미갤러리, 이한희 개인전 개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14일부터 오는 4월 14일까지 장미갤러리 2층에서 이한희 개인전 '아름다운 군산을 노래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군산의 모습을 소개하고자 군산의 사계를 주제로 봄에는 평당보리의 푸름을, 여름에는 들꽃의 향기를, 가을에는 바다의 풍요를, 겨울에는 철새들의 역동성을 표현한 한국화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작가 특유의 전통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현대적 기법이 혼합된 작품을 통해 옛것에 대한 그리움과 새것이 주는 즐거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 이한희 작가는 군산예술의전당, 전라북도청 갤러리, 장미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현재는 사)한국서가협회 군산지부장, 군산서성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의서전람회 초대작가, 심사위원 역임 등을 하며 한국화가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작가는 "작품 작업하며 느꼈던 예술이 주는 기쁨과 치유의 힘을 관객들과 공유하고 싶



이한희 개인전 '아름다운 군산을 노래하다' 2024.02.14 (수) ~ 4.14 (일) 장미갤러리 2층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다며, 군산의 아름다운 모습이 담긴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이 피로한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마음의 위안과 행복을 느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